



남미은행(BDS)

- Banco del Sur -

I 개요 및 기구 특징

1. 설립 경위

- 90년대부터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한편, 좌파정권의 득세와 함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
-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IMF나 세계은행 등 미국주도의 금융질서에 반대, 남미지역만의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미은행 설립 제안

※ 설립연혁

- 2004.8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, 지역은행 창설 제안
- 2007.2 아르헨티나-베네수엘라 정상회담에서 남미은행 추진 합의
- 2007.4.16 남미국가공동체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남미은행 창설 제의, 공식 의제화
- 2007.5.22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교·경제장관 회담에서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볼리비아, 파라과이에 이어 브라질이 참여의사 확정
- 2007.6.11 남미은행 창설관련 실무회의 개최. 남미은행의 설립목적, 기능 및 조직, 운영방안, 출자금 출연 방식 등 협의
- 2007.12.9 아르헨티나 Cristina Kirchner 대통령 취임식 계기 남미은행 창설문서(Acta fundacional)에 서명
- 2009.5.8 남미 7개국 경제장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은행 운영을 위한 협정에 최종 합의
 - * 초기 출연금으로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베네수엘라가 각각 20억달러를 출연하고 우루과이, 에콰도르가 각각 4억달러, 볼리비아, 파라과이가 각각 2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
- 2009.9.26 남미은행 회원국 정상, 은행설립 협정 서명

- 2012.3.3 남미은행 설립협정 발효
- 2013.6.12 남미은행 회원국 재정장관 회담
- 2016.12.27. 공식 출범

2. 설립 목적 및 기능

- IMF를 대체하는 남미지역 금융기구
-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
- 회원국간 역내 통합 강화 및 불균형 해소(균등한 투자)
- UNASUR 내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
- 회원국 경제위기시 금융지원 및 거시경제 안정 도모

3. 회원국 현황(총 7개국)

-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에콰도르, 볼리비아, 파라과이, 우루과이

4. 기능 및 조직

가. 기본조직

- 본부 : 베네수엘라 카라카스
- 지역사무소 :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, 볼리비아 라파스
- 운영위원회(Consejo de Ministros) : 각 회원국의 경제장관으로 구성되며, 남미은행의 중장기 정책을 결정
- 이사회(Directorio) :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별로 동등한 투표권 보유하고 있으며, 예산 승인, 총재선출, 금융정책 및 신용업무 집행의 역할 담당

나. 자본

- 수권 자본 : 200억미불
- 납입 자본 : 70억미불



- ※ 국가별 자금출자액(납입자본 중)
 -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베네수엘라 각 20억 달러(각 20%)
 - 에콰도르, 우루과이 각 4억 달러(각 4%)
 - 볼리비아, 파라과이 각 1억 달러(각 1%)

다. 운영 방식

- 각 회원국의 집행이사회 참여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표성 보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부여

II 평가 및 전망

- 동 은행은 IMF, IDB, World Bank 등 서방 자본에 대해 남미지역 독자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안됨.
- 그러나, 회원국간 합의 도출 실패로 2004년 남미지역은행 창설에 대한 제안 이후 12년 후인 2016년에야 공식 출범하였고, 자본금도 당초 계획한 2백억불의 1/3 수준인 70억불에 불과
 - 또한, 남미은행은 12개국 회원인 남미국가연합(UNASUR)의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, 남미국가연합 회원국들 중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가이아나, 수리남 등이 동 은행 설립에 유보적 입장 내지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남미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에 태생적 한계 노정
-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권 교체 및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인해 중남미 지역은행으로서 남미은행의 행보는 매우 제한적이고, 공식적인 실적 및 수치 상당기간 대외 미공개